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 연구논문

우화적 발상으로 표현된 작품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실내디자인전공

김 일 래

# 우화적 발상으로 표현된 작품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장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실내디자인전공

김 일 래

# 인 준 서

김일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 논문 개요

본인의 작품세계는 평범한 삶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생활의 연속으로서의 작업의 관점이 바탕이 된다.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철학을 우화적 표현방법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E Cassirer(1874~1945, 독일)는 예술이란 일상적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형식이고, 감각적 형식을 통해 삶의 경험내용을 전달하는 의미세계라고 한다. 남녀의 사랑이나 결혼 생활은 인간의 삶에서 일상적이고 당연시 되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보편성이 본인에게는 작품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크게 와 닿았고 꽃, 나비, 나무, 꽃잎, 인체 등으로 의인화 되어 무의식의 추상형태와 더불어 표현 되었다.

노자의 도덕경을 짚어 봄으로 작품세계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제작된 작품 중 10점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조형적 근거, 작품분석 등을 서술함으로써 작품에 대해 논하고 있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이론적 배경 .....	3
2. 조형적 근거 .....	4
3. 작품분석 .....	8
(1) 작품의 상징성 .....	8
(2) 표현의 조형성 .....	9
① 작품 재료의 특성 .....	9
② 작품의 조형 방법 .....	9
III. 결론 .....	26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2> 日常 & INSIDE	#김일래	11
<작품 3, 4> 日常 & INSIDE	#김일래	14
<작품 5, 6> 日常 & INSIDE	#김일래	16
<작품 7> 日常 & INSIDE	#김일래	18
<작품 8> 日常 & INSIDE	#김일래	20
<작품 9> 日常 & INSIDE	#김일래	22
<작품 10> 日常 & INSIDE	#김일래	24

# I. 서론

예술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태어나며,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삶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본인의 삶의 과정 속의 일상에서 개인적인 체험인 남녀의 사랑, 결혼, 출산 등의 가정내의 경험들이 소재가 되었다. 가정은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이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사랑을 통해 인간 사랑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을 담담하게 보여 줌으로서 인간의 존재이유인 자기실현과 행복추구를 작품에서 보여주려 한다.

표현연구에 있어서는 예술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자연<sup>1)</sup>이 이루어지는 즉, 무의식의 추상형태를 설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모티브<sup>2)</sup>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그것들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작품화 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는 일원론적 세계관인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작품이 스스로 제작되어진 부분들의 정신으로 짚어보고 본인 작품의 형태적 특성에서 보여지는 무의식의 추상형태를 다다의 아르프 작품에서 나타난 우연성과 그 논리를 계승한 앵포르멜(Informel)<sup>3)</sup> 화가들의

---

1) 여기서 자연이란? 무의식적인 작업 과정들을 의미한다.

2) 예를 들면, 작품에 보여지는 꽃은 의도하지 않았고 작은 형태들로 만들었으나 바탕화면 위에서 릴리프적 작업 중에 꽃 모양으로 형상이 만들어졌다.

3) '비정형'이란 의미의 '앵포르멜'은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뒤뷔페와 코브라 그룹작가들의 경

특징인 순수한 행위성과 그 궤적으로서 드러난 마티에르적 표현방법과 연관지어 조형적 근거를 약술하였다.

연구의 표현방법은 일상적인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녀의 사랑, 결혼, 출산, 가정을 꾸려가는 것 등의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이 작품의 내용적 소재가 되었고 흙을 재료로 하여 작품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몰입 속에서 비정형 구상 형태(인체, 나뭇잎, 꽃, 나비, 비오는 풍경, 나무, 달팽이, 벌레 등)와 추상형태를 통한 변용의 조형관을 통해서 은유화된 우화<sup>4)</sup>적 발상의 표현 방법을 보여준다.

---

우는 완전하게 추상회화라고 말할 수 없는 구상회화적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며, 아르통, 솔라즈, 마티외 등은 표현적인 붓터치를 보여주지만 미국의 액션페인팅화가들 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약하며 감미로운 서정성을 보여준다. 어느 하나의 경향을 지칭하는 결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전후(戰後)의 파리화단에서 유행했던 서정적이고 표현적인 경향을 띠는 추상회화를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일반적인 용어 중 하나다. 즉, 앵포르멜 미술안에는 ‘타시즘’, ‘서정적 추상’ 그리고 모래 점토 등 재료를 강조하는 ‘마티에르 회화’ 등이 전부 포함된다. 앵포르멜이라는 용어는 형식에 반대하는 비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에 의한 이성적 절제가 아니라 직관적이고 자발적이며, 본능의 자유로운 분출에 의해 창조되는 미술을 뜻한다.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2007), pp.285-287

- 4) 우화(偶話) : 사전적 의미로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작품에서는 꽃이나 나비 나무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의인화된 상징들은 작가 본인이기도 하며 연관된 인물들이 되기도 한다.

## II. 본 론

### 1. 이론적 배경

동양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도법자연(道法自然) 무위자연(無爲自然)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자연(自然)이라는 말은 '도덕경'에 언급되는 뜻으로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연(nature)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가공되기 이전의 모든 주어진 원래적 현상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노자는 '도'(道)를 '자연'으로 보고 있다.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 하여 길(道)은 자연의 법칙이라 하고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연(蓮)한다. 즉, 스스로 제작되어 진다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 진다는 것은(자연)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전에 한 대상이 존재하는 형태를 강조해서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사물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동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은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물의 흐름 혹은 생물의 생성과정 그리고 사람의 동작도 경우에 따라 자연이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산이나 들, 나무나 짐승, 하다못해 돌멩이, 사막 등을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들이 물리 현상이기 때문이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인위적으로 변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의미화된 존재와 대립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sup>5)</sup>.

인간은 노자가 말하는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의미차원을 갖고 있다. 의미차원이란 인간의 의식구조에 의해 비친 모든 대상, 즉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의식된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무엇 무엇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에 조직된 의미 세계를 지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 차원은 인위적인 것,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 존재이다. 이렇듯 인간은 존재 차원과 의미 차원을 가지고서 거리를 가능한 축소시키려는 필연적인 욕망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예술적 욕망에서 나타난다<sup>6)</sup>.

인간은 자연과 자신 사이에서 비지적(非知的)인, 감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 본인도 작품을 만드는 작업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연에 가까워지고 자유롭고자 하는 필연적 욕망의 발로(發露)로 우연의 법칙을 도입하여 작업하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작품 제작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의식적 우연의 법칙과 연관지어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우연성의 법칙은 의도되었으나 반복과 무의식적 몰입에서 도출된다 할 수 있다.

## 2. 조형적 근거

본인 작품의 형태적 특징에 보여지는 조형형태는 다다의 우연성과 그 논리를 계승한 앙포르멜 화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인 순수한 행위성과 그 궤적으로서 드러난 마티에르적인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회화에 있어서 우연적 표현양식은 '다다'로부터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다다

---

5) 박이문, 「노장사상」, 문학과 지성사, p48-50

6) 박이문, 「노장사상」, 문학과 지성사, p148-150

7) 다다(Dada) : 제1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스위스 취리히먼저 일어난

의 반예술적 활동과 반 합리주의 정신에서 초현실주의는 우연성을 계승 획득하였으며, 시대적으로 반조형적 표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우연성은 다다가 획득한 유일한 소산이며, 그것은 인간의 계산된 의식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의 확인과 표출의 시작이었다. 모든 다다리스트들이 얻은 결론은 우연을 예술 창조의 새로운 자극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종래의 예술형식이 외면한 인간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는 의식세계의 확장과 미술의 영역의 확대를 얻게 되었다. 이런 정신은 계속해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까지로 이어진다.

아르프의 우연성의 발견은 우연한 것이었다. 어느날 한참의 드로잉 작업 중 만족을 느끼지 못한 아르프는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흩뿌려 버렸다. 그런데,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의 무늬에서 그가 여태까지 헛되게 찾던 표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아르프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주워 올려 자신이 본 그대로 그것들을 다시 붙였다. 그는 곧 색종이 조각을 그러한 구성요소(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찢은 색종이의 조각들)로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배치시켰다. 아르프는 큼직한 종이 위에 작은 종이 조각을 떨어 뜨리는 것으로 그러한 구성을 시작하고, 다음에는 그 <자연스러운> 배치를 신중하게 조정했다.(도1)

“우연의 법칙, 그것은 생명들이 솟아오르는 근원과도 같이 불가사의하다. 우연의 법칙은 그 자체내에 모든 법칙을 포함하며, 이는 완전한 무의식에 몰입함으로써만 경험될 수 있다<sup>8)</sup>.” “이 면들의 높임과 그 크기, 색깔은 전적으로 우연성을

---

예술운동으로서 문학적, 회화적, 음악상의 운동으로 반미학적 반 도덕적인 태도를 특색으로 하는데, 전통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것에 반대하여 제도에 반대하고 모든 것에 반대한다. 그 기본적인 원칙은 부정이다.

8) 신윤정, 아르프의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21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작업들이 자연의 법칙과 같은 우연성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을 공언한다<sup>9)</sup>”라는 다다의 대표적인 작가인 아르프의 말처럼 본인은 작품제작에서 무의식적 우연성을 최대한 도출하려 하였다. 이 과정은 몰입과 빠른 신체의 행위가 뒤따른다.

아르프의 우연에 대한 개념은 초현실주의의 사물의 본래의 특성을 드러내 무의식을 표현한 데페이즈망(Depaysement)의 심리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띤 방법의 우연이나 짜라(Tristan Tzara)는 ‘우연’을 선택하는 일을 자연의 일로 내버려 두었다. 즉, 작품은 우연에 의해서 그 작가를 닮게 된다는 짜라는 인간의 명료한 의식 상태를 거부하고 무의식적인 것만 중요시함으로써 그 한계를 노출시킨 짜라의 생각과도 다르며 뒤샹의 개념과도 다르다 할 수 있다.

아르프의 우연의 법칙은 유희적이고 물리적이며 상상력에 자극을 주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시각적인 우연을 명료한 의식상태에서 선택하여 확정적인 형태를 결정지운다 할 수 있다.

우연성이 드러나는 본인의 작업과정은 무념상태의 행위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형상들 속에서 의외의 형태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형성된다. 무한히 자유롭고 유희적이다.

작품의 형태적 특징에 보여지는 표현형태를 무의식적 추상형태로 명명하고 비정형의 구상형태와 비정형의 추상형태를 변용하여 표현하였다.

앵포르멜이란 비정형(非定型)을 의미하는 불어이다. 화가의 체험과 실존이 녹아 있는 표현방법으로 직관적이며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차용하고 있고 마티에르를 중시하는 물질화(matter painting)이다.

자동기술법(automatism)은 이성적인 통제력 없이 관념적인 심미안에서 벗어나 생각, 무의식, 본능을 직관적으로 무한히 드러내는 것이다<sup>10)</sup>.

---

9) 신윤정, 아르프의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20

앵포르멜 화가들의 특징으로는 순수한 행위성의 강조가 아닌 행위의 적나라한 궤적으로서 드러난 마티에르의 강조가 그 중심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티에르는 촉각적 물질성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앵포르멜의 대표적인 작가 장뒤뷔페는 예술가의 의도보다 더 많은 능력을 지닌 신기한 마띠에르라 하여 재료의 자발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sup>12)</sup>. (도2)

작품에 사용된 흙(옹기토)은 단순한 재료의 의미를 벗어나 물질 그 자체가 지닌 호소력과 흙이 주는 질감의 마띠에르는 쇠해라로 굽기도 하면서 극대화시켰고 평면적이거나 릴리프적 화면내에서 거친 마띠에르와 질감으로 보는 이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불러 일으키며 또한 작가의 감성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작품에 보여지는 표현형태의 조형적 근거를 작품에 우연법칙을 도입한 개척자라 할 수 있는 다다의 아르프가 보여준 우연성에서 그리고 앵포르멜 미술의 일군의 작가들에게서 보여지는 비정형의 구상회화적 경향과 재료를 강조한 마티에르 회화의 표현적 추상회화와 연관지어 본 연구작품의 조형적 근거를 약술해 보았다.

---

10)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한길아트, 2007, p195

11) 임군식, 마띠에르와 행위를 통한 추상적 회화공간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7, P6

12) 이화여대 미술연구회, 「현대미술의 동향」, 눈빛, 1994, p.264

### 3. 작품분석

#### (1) 작품의 상징성

예술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자아실현(自我實現)의 방식이고 삶의 여러 형태들중 하나로서 삶을 구성한다. 본인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체험들이 작업의 소재가 되었다.

예술이 인간의 정신, 감정, 정서를 생명력 있게 표현하는 형식이라면,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추상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재를 완전히 재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감정 또한 재현할 수 없다. 이에 작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예술의 형식들을 발견해야 하며, 자연과 인간 속에서 감정의 내면 형식의 반영물을 찾는다<sup>13)</sup>.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 수필가인 소로우의 그의 명상일기에서 “세상사람들이 애용하는 이야기는 교훈을 갖춘 우화다. 아이들은 우화만을 읽어나 성인들은 우화와 교훈 둘 다 읽는다. 우화로 이야기된 진실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이점을 누린다. 우화가 아닌 그 무엇이 여러 가지 생각을 이을 접착제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처럼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관계와 가정생활이라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거나 작가의 체험에서 오는 느낌을 우화적 발상의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13) A.바신, 오병남,윤자정 공역 「20세기 예술철학사조」, 서울:경문사, 1987, p.164

## (2) 표현의 조형성

### ① 작품재료의 특성

작품의 표현적 재료로 흙을 사용하였다. 표현에 있어서 흙이 가진 유동성과 임의적 실험과정<sup>14)</sup>에서의 물성이 주는 친숙함으로 작품의 재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옹기토는 구워졌을 때 붉은 벽돌색이 나는데 소성에 따라(온도와 굽는 횟수) 초콜렛색에 가깝게 낼 수도 있다. 벽돌색이 주는 익숙함에서 오는 자연스러움과 초콜렛색의 깊은 느낌은 위에 다양한색이 입혀졌을 때의 좀 더 강렬한 표현효과를 원했기에 옹기점토를 사용하였다.

색(color)은 도자용 고화도 안료를 사용하였다.

온도가 800oC~1250 oC로 고화도 소성이라 높은 온도에서 색이 발색되는 안료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유광과 무광을 적절히 소량 사용하였는데 재료의 질감과 착색 느낌에서 최대한의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흙을 구우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 불의 소성, 유약의 성질, 흙의 재질에서 오는 특성 이러한 것들은 작품에 조형적 영향을 주며 작품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작가가 자유롭게 잘 활용할 때 표현방법의 극대화를 가져온다 할 수 있다.

### ② 작품의 조형 방법

작품의 표현형태는 비정형 구상형태(인체, 나뭇잎, 꽃, 나비, 나무, 달팽이, 벌레 등)와 비정형의 추상형태를 통한 변용의 표현을 보여준다. 구워지기 전의 점토(옹기토)는 유연하여 유동적이다.

잘 반죽된 큰 덩어리의 점토는 크기에 상관없이 임의의 여러 개의 조각으로

---

14) 임의적 실험과정이란 점토(옹기토)를 가지고 그 재질의 유연성 및 유기적 형태를 추구하고 작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형의 완성, 제작 후 말라가는 과정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그 유기적 형태가 자연의 조건에서 변화하는 과정

분리된다. 여기서 분리시키는 도구는 손, 나무해라, 쇠해라, 나이프 등 제한이 없다. 분리된 조각들은 나무방망이로 두드리면서 납작하게 편다. 퍼진 편평한 형태들은 각각 다르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환기(喚起)시킨다. 그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중간에 물을 뿌릴 수도 없다. 물을 뿌리면 접력이 떨어져 마르면서 혹은 구워지는 과정에서 금이 간다. 작업은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빠르게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과정 속에서 우연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환기된 형상들은 꽃잎, 인체, 나무, 달팽이 등의 비정형의 구상 형태와 추상형태들로 이루어져 유기적 형태의 베이스 위에 릴리프적 형태를 취하면서 우화적인 발상의 표현으로 조형되어 진다. 옹기토는 소성후 다른 소지(백토(백자용) 청토(청자용) 조합토 등)보다 붉은 색을 많이 띤다. 이는 소지 자체에 높은 철분 함량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옹기토의 벽돌색은 우리에게 익숙하며 투박하고 정감 어린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옹기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은 도자용 고화도 안료와 유약을 사용하였다. 색의 느낌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 보여지는 색들은 그때의 느낌에 따라 순간 떠오르는 색을 칠하였는데 본인에게 상당히 즐거운 작업이었으며 색은 작품표현에 있어서 강한 표현성을 보여준다.



<작품 1>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36x36



<작품 2>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36x36

[작품 1] 日常 & INSIDE

[작품 2]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36 x 36

제작방법 :

반죽이 잘된 옹기점토를 가지고 손으로 혹은 여러가지의 도구로 무작위(無作爲)로 크기에 상관없이 분리시킨다. 그 중 좀 크게 분리된 덩어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무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편다. 퍼진 형상은 유기적 추상형태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다시 분리된 조각 덩어리 중 작은 것들을 선택하여 반복 작업을 한다.

그러한 형상 중 꽃잎이나 꽃, 나비 형태를 보이는 것들을 발견하면 명료하게 형상이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바탕화면 위에 덧붙여서 릴리프적인 판(저부조) 작업을 완성한다.

판의 가장자리부분은 중심지점의 건조상태보다 건조시간이 빠르며 중심부분은 가장자리에 비해 건조속도가 늦다. 그래서 판을 건조시킬 때 가장자리부분은 신문지나 천으로 둘러싸서 중심부분과의 건조상태와 맞추어가며 건조시켜야 한다.

하물며 불규칙한 릴리프형식을 띠고 있어 건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응달에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서서히 건조시켜야 하며 금없이 완전히 마르면 가마에서 800℃~1250℃에서 안료와 유약, 수금을 발라가면서 3~5회에 걸쳐 구워서 완성한다.

완성된 작품은 벽에 붙일 수 있는 판 작업이기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액자를 사용하였는데 여러가지를 생각해본 결과 금속판의 표면을 스웨이드 느낌나게 처리하여 작품과 어울리면서 좀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원했다.

내용 :

남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연의 상징물인 꽃과 나비의 은유로 사랑의 대화를 표현하였다.

무의식적인 형태인 유기적 한 화면 안에서 이름 모를 꽃은 나비를 유혹하고  
약간 화려한 나비는 꽃의 유혹에 부응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작품 3>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45x45



<작품 4>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45x45

[작품 3] 日常 & INSIDE

[작품 4]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45 x 45

제작방법 :

작품 1, 2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할 수 있는데 차이라면 두 송이의 꽃형상 위에 유기적인 비정형의 추상형태가 겹쳐진 것인데 작품 3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추상형태가 작품4에서는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의 추상형태가 보여진다.

내용 :

결혼으로 이어진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두 송이의 꽃은 남녀를 은유 하였다.

추상적 무의식의 하나의 무늬 형태에 묶인 두 송이의 꽃은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속의 부부이다.

<작품 3>은 결혼 생활의 첫걸음 이후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의 힘겨움 중 슬픔을 느낄 때이며,

<작품 4>는 분노의 경험을 은유 하였다.



<작품 5>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45x45



<작품 6>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36x36

[작품 5] 日常 & INSIDE

[작품 6]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45 x 45

작품크기 : 36 x 36

제작방법 :

앞의 작품들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바탕 화면 위에 비정형의 꽃잎 형상들을 겹쳐 붙여서 한 송이의 꽃의 형태를 보인다.

여성적 감수성의 발현이 돋보이는 중앙 집중적 형태이다. 여성은 남성과의 신체 조건의 차이에서부터 임신, 출산의 특별한 경험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남성과는 상이한 자아인식의 특수성을 가시화한 이미지들이다.

내용 :

결혼한 부부에게 성은 그 자체가 같이 살아가는 생활의 일부일 것이다.

꽃잎들로 은유된 자궁은 인체의 형상으로 은유된 정자를 품고서 환희를 노래한다.



<작품 7>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72x36

[작품 7]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72 x 36

제작방법 :

큰 점토덩어리에서 분리된 것들 중 가늘고 길쭉한 여러 개의 형들을 골라서 양쪽 손바닥으로 굴리면서 밀어서 더욱 길게 만들어서 불규칙하게 코올링(나선형으로 쌓아 올리는 것)한 것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냥 긴 상태를 두드리 편평하게 펴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란색의 비정형의 추상형태와 코올링한 것에서 꽃 형상이 도출된 것을 그늘에서 중간 정도 건조시켜 순간 순간 느낌이 가는 색을 칠하였다.

내용 :

여성이 가진 잉태와 생산이라는 생물학적 기능과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환희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오른쪽의 푸른 한 송이 꽃을 품고 있는 여성의 인체는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생명에 대한 만남의 기대와 즐거움으로 부유하는 노란색 무의식의 무늬 형태들과 푸른 꽃들은 화면 안에서 환희를 노래한다.



<작품 8> 日常 & INSIDE (2004~2006) / 용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45x45

[작품 8]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45 x 45

제작방법 :

앞의 작품제작 방법과 같다.

덧붙이자면 바탕화면의 표면에 날카로운 쇠헤라로 불규칙한 빗살무늬를 무작위로 긁어 새김으로써 흠이 가진 질감을 극대화시켰다.

내용 :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행복을 표현하였다.

이름 모를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봄날의 따스함 속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나비를 통해서 아이가 집 앞마당에서 주워온 한 마리 달팽이의 연약함과 딱딱한 껍질 속의 부드러움에서 현재를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인의 정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9>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45x45

[작품 9]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45 x 45

제작방법 :

앞의 작품들의 제작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작품들 전체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색은 의미가 부여된 색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그때의 느낌에 따라서 칠해졌다.

작품9에서는 노란색이 많이 사용 되었는데 작업 그 당시 심리상태와 구불한 형태의 격렬함이 화면에 노란색을 불러들이면서 그와 더불어 검은색의 불규칙한 나선형의 둥근 선들이 표현적으로 덧붙여졌다.

내용 :

가정 생활에서의 조화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는 가정 내에서도 보여진다.

아버지, 남편으로 대변되는 남성의 권위와 지배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도 억압과 부담을 준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본인은 여성스러움으로 인하여 남성성을 제어하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며, 靜으로 動을 이긴다고 한 노자의 말에 공감하면서 무의식적이고 유기적인 거의 원형의 화면 안에 노란색의 구불하고 거대한 추상적 형태가 짙어차 있고 그 사이에 연인의 인체가 간혀 있다.

그러나 부유하는 분홍의 꽃잎들은 유약하나 부드럽고 자유롭다.



<작품 10> 日常 & INSIDE (2004~2006) / 옹기토, 도자용안료, 수금, 30x30

[작품 10] 日常 & INSIDE

제작년도 : 2004 ~2006

작품크기 : 30 x 30

제작방법 :

앞의 작품들의 제작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전체 작품들에는 다양한 색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소량의 수금을 화면에 칠했다.

수금은 구워져야 금색으로 발색이 된다.

황색금은 금색으로 백색금은 회색빛이 강한 백색금으로 발색되었는데 안료와는 또 다르게 생동감과 작품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써 수금을 도입하였다.

내용 :

자연에서 나무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의 한 생애를 함축성 있게 설명해 준다.

지구의 시간성 속에서 묵묵히 오랜 인고의 세월을 지내며, 움직이는 생명체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과 휴식을 주며, 생명의 새싹을 가장 먼저 피운다.

화면 안에서의 나무는 본인이며, 나의 가정이며,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다.

### Ⅲ. 결 론

작품분석을 통하여 노자가 말하는 자연과 연관지어 우연성의 도출을 짚어 보았다. 인간은 자연이면서 또한 의미화시키고자 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이들의 거리를 좁히려는 본능적 욕망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도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무의식적인 욕망의 발로로 우연성을 도입하면서 의식화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게 작업하고자 하였다. 조형적 근거로서 다다의 작가 아르프가 발견한 우연의 법칙과 본인의 작업과정 속에서의 우연성과 연관지어 근거를 제시하고 앵포르멜의 일군의 작가들이 보여준 물질화의 단순한 재료를 넘어서 마띠에르로 정신을 표현하고자 한 것과 본인의 흙으로 표현된 작품의 재료성과 마띠에르와 관련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본인의 조형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삶은 평범 속에서의 진리 추구라고 했던가?

예술은 삶을 반영하고 작가이면서 또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의 작품은 대다수 평범한 삶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투영이라 할 것이다.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은 조형예술을 하는 작가의 역량이라 생각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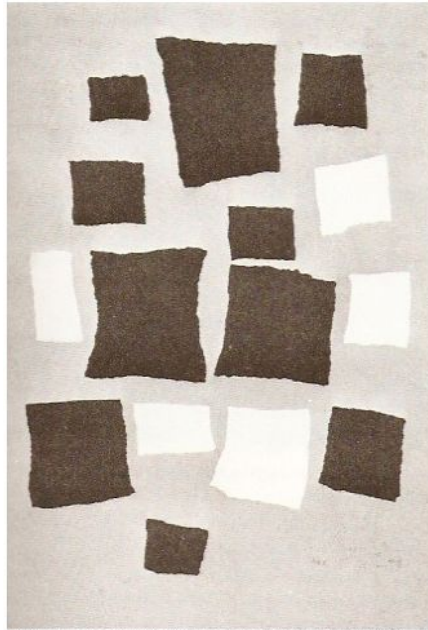
본인도 나름 작업을 하는 동안은 흙이 주는 유동성으로 유희와 몰입의 순간들을 즐기면서 진행 하였다.

그러나 흙이라는 재료는 마르는 과정과 구워지면서 또는 자유롭지 못한 채색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다.

한동안은 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치름과 소박함을 좋아하기에 작품의 표현방법이 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표현연구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이번 작품 연구과정 속에서 새삼 느끼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작가가 되고자 한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장 아르프<우연의 법칙에 따른 사각형의 콜라주>1916~7



<도판 2> 돌로 된 여인, 1950

## 참 고 문 헌

- 디트마 엘저, 김금미 역, 「다다이즘」, 마로니에 북스, 2008.
-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1999.
- 모하임 나겔, 황종민 역, 「초현실주의」, 미술문화, 2008.
- 박일호,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1, 2, 3」, 통나무, 2000.
- 안종수,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 2006.
- 박이문, 「노장사상」, 문학과 지성사, 2004.
-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1, 2, 3, 4, 5」, 지식산업사,
- 칙센트 미하이, 최인수 엮, 「몰입」, 한울림, 2007.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사랑, 2000.
-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6
- 수잔K랭거, 박용숙 엮,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최민철 엮, 「나를 다스리는 목직 한 침묵」, 거송미디어,  
2008
- 허버트 리드, 김성희 역, 「간추린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 이화여대 미술연구회, 「현대미술의 동향」, 눈빛, 1994
- A.바신, 오병남,윤자정 역, 「20세기 예술철학 사조」, 경문사, 1989
- 참고논문
- 임균식, 「마띠에르와 행위를 통한 추상적 회화공간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신윤정, 「아르프의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ABSTRACT

## Research on the Allegorical Inspirations Expressed in Onggi Clay Centering around the personal works

IL rae, Kim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Art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y works are based on the perspective from the works of continued humans' universal sentiments and living in ordinary lives.

These works were created by visualizing the philosophy of humans' common lives through the allegoric expressions.

E. Cassirer (1874~1945, Germany) defined art as a form based on the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and it is a world of meanings that can convey the life experiences through the sensational form. Love or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are acts that are very routine and taken for granted in our lives.

However, these universalities of human approached me naturally as the subjects of my works, and they were personified into flowers, butterflies, trees, petals, and human bodies, expressed together with the abstract form of subconsciousness.

I planned to establish theoretical background by reviewing Lao tsu's Tao

te ching, and 10 pieces of the created works were selected for discussing them through analysis of their contents, and description of their formative basis.